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5일 목요일 음 8월 29일 (6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쌀쌀하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15°C, 낮 최고 기온은 19~21°C가 되겠다. 중산간 이상 지역의 낮과 밤 기온차가 10°C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Table with 2 columns: Day (오전, 오후) and Humidity (습도). Rows show humidity level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Sunrise (해돋이) and Sunset (해질녘). Rows show tim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Tomorrow (내일) and Day After Tomorrow (모레). Rows show weather and temperature for Hyeon and Gyeongsangbuk-do.

Table with 2 columns: Food Safety (식중독지수) and Air Quality (자외선지수). Rows show 'Watch' and 'High' levels.

월드뉴스

소통이 휴대전화 방사선 막는다?

인도서 이색 칩 제품 출시 검증 언급 없어 반응 쌀쌀



소통으로 만든 휴대전화 방사선 차단용 칩.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가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암소의 똥으로 만든 휴대전화 방사선 차단 칩이 출시됐다.

13일 ANI통신 등 인도 언론과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의 국가암소위원회는 전날 제품을 선보였다.

소 보호 관련 산업 현대화를 목표로 내세운 국가암소위원회는 지난해 인도 정부에 의해 설립됐다. 위원회의 발라브라이 카티리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암소의 똥엔 방사선 차단 효능이 있다"며 "이 칩을 휴대전화에 부착하면 방사선이 크게 줄 것"이라 주장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선 냉소적인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카티리아 회장의 주장이 맞다면 노벨상을 줘야 할 것", "소똥으로 목욕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니 이번엔 휴대전화 방사선이나"라고 국가암소위원회 측을 비난했다. 힌두교도는 암소에서 나온 것들은 특별한 효능을 가졌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소똥과 오줌으로 만든 약과 비누도 팔리고 있다. 정부도 소똥과 오줌을 제품으로 활용한 연구에 수백만달러를 배정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총무부장

스포츠 활동은 신체활동, 상호경쟁과 레저의 특성으로 우리 생활과 떼놓을 수 없는 영역에 자리잡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가치를 높여 왔다. 게다가 인종과 종교, 민족을 뛰어넘는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으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그저 보고 즐기는 소비 활동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고 유통하는 생산 활동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수요가 늘어나고

멈춰 선 제주스포츠산업 뉴딜의 기회

1998년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스포츠산업 육성 대책(2001년)'과 '스포츠산업비전(2005년)'이 나왔고, 지난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 등 급변하는 스포츠 산업 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내실 있는 산업 성장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산업중장기발전 5개년계획(2019~2023년)'이 발표됐다.

국가적인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앞서 제주의 경우 스포츠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1992년에 이미 1998년 제79회 전국체전 제주 개최를 결재해 스포츠 인프라 확보에 나섰다. 대회 준비 및 개최 당시 국가직인 IMF 위기상황에서도 유사 이래 최초의 국민적 종합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데 이어 1999년 6월에

는 제주가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발족했다. 2003년에는 공식기구로 '스포츠산업과'를 편제했고 2007년과 2016년에는 '제주 스포츠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놨다. 2011년도에는 한 해 동안 '골프 관광객까지 포함해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팀 유치로 1조 332억여원의 생산 효과' 발표가 나오면서 "관광과 감골에 이어 스포츠산업이 제주 제3의 지주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광과 연계한 스포츠산업 정책의 추진으로 2013년 제주 관광객 1000만 돌파에 기여하면서 2014년 제95회 전국체전과 2015년 제44회 전국소년체전, 2017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적인 3대 종합체전 제주 개최로 일정 부분 조정을 거쳐 제도약을 준비하던 제주의 스포츠산업은 2020년 2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올해 제주에서 계획된 200여개 대회가 중단 또는 취소되고 있으며 전지훈련 팀 유치도 쉽지 않게 돼 제주 스포츠산업 육성의 대표적인 두 축이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재정확보의 어려움으로 내년도 행사성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고돼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위기는 다른 한편으로 20년간 그 끈을 놓지 않고 유지 발전시켜 온 제주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정비와 성장을 통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제주체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화두가 된 '엔택트(non-contact)'를 넘어 '온택트(online contact)'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한 차원 높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제주형 스포츠산업으로 거듭나는 뉴딜(New Deal)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

열린마당

정치를 춤추게 하는 방법



김지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의 원천도 국민이다. 정치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 신뢰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투표시켜 기회를 부여하고 기대와 믿음을 저버린 정치는 다음 선거에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선거를 통한 수차례의 정권교체를 거치며 공고화된 민주주의로 접어들었다. 4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도 66.2%의 높은 참여 속에 21대 총선을 차질없이 관리해 전 세계에 선거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줬고 올해 18세 유권자의 탄생으로 선거사는 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다.

선진 선거문화에 이어 해결해야 할

이 나라 현실을 보면서



현두호

전 서귀포시 남원읍시장협의회회장

먼저 우리나라 국민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의료진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한 생명이 천보다 귀하다는 각오로 열심히 대처하면 그 대가는 온 국민이 보답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뿐 아니라 안보까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치는 난장판, 싸움판, 당파싸움 등 무법천지다. 시장, 장관, 의원은 가슴에 손을 대고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사죄하고 국민 앞에 회고의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길 바란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 일을 잘하는 정치인에게는 큰 찬사를 보낸다. 특히

임명권자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적격 후보에게는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 직권적으로 임명을 하면 이후의 혼란은 감잡을 수 없지 않은가.

필자도 정보와 뉴스를 알리고 TV를 켜다가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 그냥 꺼버린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모든 정치인은 이제라도 국민이 무서운 줄 깨닫고 올바른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경제는 어떠한가. IMF 때보다 어렵고 코로나19의 대처로 나라는 부도 위기가 아닌가. 사회는 어떠한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각종 불법 집회, 종교단체까지 가담하며 사회는 무법천지가 됐다. 외교 역시 압박에 압박이다. 북한과 일본은 외교의 단절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인 우리나라는 안보의 특별비상사태이다.

이런 나라의 현실을 보며 필자는 몇 마디 쓴소리를 했다. 쓴소리를 보약으로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친다는 각오로 일할 때 이 나라 앞에 광명의 빛이 비취 온 국민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Ferkacalcium + Cocorybion. Features a cartoon character and lists benefits like '120 years of history', '100% water-soluble', and '15-3-5+ special ingredients'.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Title: 'If you are a farmer, you must see this advertisement'. Lists benefits like 'Increase yield', 'Happy green', and 'High yield'.